Entertainment p/17

믿고 보는 배우 이종석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제3143호 www.metroseoul.co.kr

News p/23

포천 닭농장도 AI 확진

"회장님 퇴진하시죠"

투자·인사 마비된 CJ그룹 관련기사 13p

이재현 회장

남북정상회담? 글쎄요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 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 류 장관은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단순한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남한 계속 도전시 단호한 징벌"

북한은 25일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왜곡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에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덕을 본적도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강행, 대북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 남한의 실제 행동이 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송병형기자

'다이아 게이트' 무죄 '정치 리스크' 희생양

기업들 해외자원개발 몸 사리기 "자원외교 국조서 해법 내놔야"

25일로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 달째를 맞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예정된 총 100일의 시간 중 30%를 허비했다. 그 사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사업이 '정치 리스크'로 인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까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에서 이같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든 끊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뒤 매장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외교통상부는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매장량 4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이로 인해 CNK의 주가는 단기간에 30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로 홍보됐다.

하지만 2012년 1월에 성공사례는 '권력형 사기사건'으로 흘러갔다.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는 없고 이익을 노린 민관의 주가조작 공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설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 됐다.

결국 무죄로 결론은 났지만 결과는 씁쓸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광산의 개발사업권이 중국 타이푸(泰富)그룹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싹쓸이에 나선 중국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된 결과였다.

피해사례는 CNK에 그치지 않는다. 해체된 STX그룹이 2009년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가나 하우징 프로젝트'는 '제2의 다이아 게이트'로 지목되기도 했다. 역시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지원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가나 진출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가나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한 교포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쇼핑센터 등 현대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설 정도로 건설붐이 일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외자원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 끌려 들어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조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 반대한다'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南北보다 北中정상회담이 먼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올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회의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처음 열려 '반둥회의'로 불린다. 미국과 소련에서 탈피, 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 이 회의를 계기로 비동맹 노선을 걷는 제3세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비동맹운동(NAM)의 시발점으로 통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비동맹외교를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계기에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현지에서 연설을 했다. 이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수행했다.

중국은 반둥회의 창설 멤버다. 2005년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60주년이 된다.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일성 따라 하기'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반둥회의는 주목할 만한 외교 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이번 회의를 정상 외교 데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제1비서와 시 주석이 모두 참석하면 김 제1비서는 북중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최근 러시아 외무성은 김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해진다. 다만 북중정상회담에는 뒤쳐지는 셈이다.

/송병형기자

'용두사미' 된 첨단무기사업

예산 없어 줄줄이 사업 연기

국방부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첨단무기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전력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하면서 당장 다음달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 시기를 4~5월로 연기했다. KF-16 성능개량·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 공군의 주요 전력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아기자 yoona1@

통일교 '대통령 하야' 특급정보설

'정윤회 문건' 폭로한 세계일보, 정권과 일전불사?
내부 관계자 "3건 정도 있다… 7~8개는 아닌 것 같다"

"특급정보의 내용은 모르지만 3건 정도 있다고는 알고 있다. 7~8개는 아닌 것 같다."

25일 한 세계일보 간부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기자는 이 간부에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언론의 보도대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7~8개의 청와대 특급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정윤회 문건'에 이어 정권을 뒤흔들 또 다른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를 세계일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지난 23일 한겨레는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교내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의 존재를 전했다. 특급정보는 보도된 문건에서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통일교는 '정윤회 문건'을 폭로해 정국을 뒤흔든 세계일보의 주인이다.

한겨레는 신도대책위로 대표되는 교내 주전파들에 대해 "박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최후까지 싸워보자는 강경한 태도"라고 보도했다.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주전파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타협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돌아섰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앞에 쥐가 되어 버린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된다"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간부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겨레가 어떤 뜻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주전파라는 사람들이) 정권과 한판 뜨자고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의 일전불사를) 할 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학자(왼쪽) 통일교 총재와 박근혜 대통령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 사람들도 아니다"고 했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에 대해 세계일보 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와 접촉한 세계일보 간부는 "신도대책위가 거론한 핵무기나 특급 정보란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로서 의미를 둘 내용이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신문과 접촉한 간부는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이완구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남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엑스레이 (X-ray) 사진을 내보이며 공개검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 언론인, 의료인 또는 어떤 관계자든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떠한 조치랄까,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

朴 대통령 '레임덕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다.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결과다. 30%까지 추락한 지지율은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10%이상 낮은 수치다. '레임덕은 여권 내에서 온다'는 통설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신년기자회견 직후부터 추락했다. 1월 둘째 주 35%, 셋째 주엔 30%였다. 부정 평가는 둘째 주 55%, 셋째 주 60%로 치솟았다.

핵심 지지층인 5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주부터 50대의 부정적 평가 응답이 긍정 평가 응답을 앞질렀고 6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웃돌았다. 셋째 주 조사에선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무려 15%포인트(p)나 오른 59%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작 민심이 쇄신을 요구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은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웃도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1월 첫째 주 44%, 둘째 주 43%, 셋째 주 41%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윤아기자 yoona1@

베이징 지하철 '공포의 수박남'

metro HongKong

수박 가면 쓰고 승객 위협

최근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 '수박남'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메트로 홍콩은 베이징 지하철 1, 2, 5호선에 수박 가면을 쓴 남성이 자주 등장한다고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박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할로윈 호박처럼 눈과 입을 판 수박 껍질 가면을 쓰고 있다. 문제는 맥주병과 고량주병을 손에 들고 지하철 칸을 이동해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결국 한 승객의 신고로 이 남성은 지하철 직원에게 잡혔다. 하지만 이 남성의 신원과 수박남이 된 사연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을 탔다가 우연히 '수박남'을 만난 승객 우모씨는 "술병도 들고 있고, 술 냄새도 났다. 기이한 모습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아마존의 나라 물 부족 오명

metro Brazil

불법 수도 배관 탓 낭비

심각한 물 낭비가 브라질의 물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메트로 브라질은 국가위생 정보 시스템(SNIS)의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기준 국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물의 양이 전체 공급량 중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물 낭비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물 낭비의 주 요인으로는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상수도 배관이 꼽히고 있다. 마나우스 시의 경우 총 물 공급량 6억 3000만 리터 중 40%인 2억 5200만 리터가 불법 배관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불법 배관을 통한 물은 고지된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돼 거리가 멀거나 높은 지역에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정자연 인턴기자

IS, 일본 인질 1명 결국 살해

남은 인질 운명 요르단 정부 협조에 달려
몸값 요구 철회하고 포로 교환 새 조건 제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이 결국 일본인 인질 한명을 살해했다. IS가 남은 일본인 인질과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리스트의 포로 교환을 요구하면서 인질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4일(현지시각) IS는 유카와 하루나(42)씨의 살해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기존 영상과 달리 처형 모습 대신 다른 인질인 고토 겐지(47)씨가 하루나씨의 시신 사진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들어갔다. 화면 나레이션으로는 "일본은 우리가 제공한 72시간 동안 인질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진의 선명도가 높지 않아 주황색 인질복을 입고 쓰러진 인물이 유카와씨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영상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일본인 인질 한명이 살해됐다는 정보가 사실로 판단된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25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NHK에 출연해 IS 인질 영상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카와씨의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살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IS는 복면 괴한이 일본인 인질 두 명과 함께 등장, 72시간 안에 몸값으로 2억 달러(2180억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붙잡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동영상을 올렸다.

일본 유력 언론들이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소식을 25일자 1면으로 대서 특필했다. 유카와씨 살해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 IS 몸값 대신 인질 교환 요구

한편 IS는 영상을 통해 "남은 인질인 고토 겐지를 살리고 싶으면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 리샤위(45)를 석방하라"고 밝히며 몸값 요구를 철회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IS 측이 석방을 요구한 사지다 알 리샤위는 2005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으로 수감된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리스트다. 알 리샤위는 2006년 요르단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조건을 거액의 몸값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베 총리는 남은 인질 석방을 위해 요르단 정부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어나니머스 해킹 경고 "아동 포르노 청소"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을 주로 공격해 왔던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이번엔 '아동학대 성범죄'에 선전포고를 했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어나니머스가 인터넷에 암약하는 아동학대 성범죄 네트워크 확산을 막기 위해 '작전명: 죽음을 먹는 자'(OP:Death Eaters)란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나니머스는 소설 '해리포터'의 악의 마술사 볼드모트 추종세력에서 이름을 따온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아동 성학대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나니머스가 이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인터넷이 아동학대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데도 각국 정부와 주류 언론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 정치권에까지 아동학대 성범죄망의 고리가 퍼져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2002년 이후 미국에서만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가 8000명 발생했으며, 아동대상 인터넷 포르노물이 매주 4만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앞서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테러단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공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경영난 NYT 회사 매각 루머 부인

'안 팝니다'(Not For Sale). 뉴욕타임즈(NYT)가 회사 매각 루머를 적극 부인했다.

24일(현지시간) 전직 뉴욕 시장이자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73·사진)가 NYT 인수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NTY가 해명에 나섰다.

NYT는 1896년부터 설츠버거 오너 가족이 경영해오고 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뉴욕 시장 임기 말기인 지난 2013년 말 아서 설츠버거 주니어(63) NYT 회장 겸 발행인에게 "NYT 매입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세계적인 유력 매체이지만 구독률 저하와 경영난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매각설이 확산되자 NYT는 대변인을 통해 "설츠버거 회장이 가족을 대표해 NYT는 매각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며 "블룸버그 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회사를 팔 계획이 없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매각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여전히 NYT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규모 자본의 언론사 인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8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경영난에 빠진 워싱턴 포스트지를 2억 5000만달러에 사들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장윤희기자

은행권 올 키워드 혁신&변화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글로벌 영업 강화도 담겨

은행권이 올해 경영전략으로 '혁신'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은 행장과 임원, 지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영업방향과 목표 등을 공유하는 '2015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회의의 공통분모에는 혁신과 변화, 핀테크와 기술금융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영업력 강화가 담겨 있다.

저성장 등 대내외 금융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전국 지점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행장은 특히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평생고객화는 IBK가 1등 은행이 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며 "이를 위해 고객의 상황별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가진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24·365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영업력 확대를 내놨다.

이 행장은 "고객과 국가를 위해 강하게 혁신하는 강한은행이 되자"며 "'24·365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금융과 핀테크로 금융산업을 선도하고, 금융관행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핵심고객, 우량자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게 언급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지난 2일 경영진 워크숍을 통해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통합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직원의 성장과 자세 변화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됐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경영 슬로건으로 '실천하는 신한,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하며,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난 9일 그룹사 CEO와 임·부서장 600명이 참석한 '2015년도 신한경영포럼'에서 "직원들의 실천은 부서장이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서장은 경영진의 실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신한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인 임원, 부서장들이 신한 문화의 영웅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NH농협금융 또한 임종룡 농협금융회장과 김주하 은행장 등 자회사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했다.

이밖에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경남은행을 BS금융그룹의 새 가족으로 맞이한 후 처음 맞는 해로 부산은행과 투뱅크 시너지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정도경영과 고객만족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24·365 혁신 프로젝트 선포식' 이광구 우리은행장(가운데)이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한 '24·365 혁신 프로젝트 선포식'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주택담보대출 비중 20% 상회

지난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에 따르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기간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올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이후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왔다. 은행별로 보면 SC(34.0%), 대구(33.2%), 하나(26.8%)은행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의 경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만기와 통상적인 이사주기(6~8년) 등을 감안할 때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SC(40.7%), 광주(29.9%), 국민(29.1%) 등의 비중이 컸다. /백아란기자

사적연금 세액공제 전환 후 가입 절반도 못미쳐

보험硏, "중산층 가입 증가 위한 세제혜택 늘려야"

정부가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자 신규가입건수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보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만큼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과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분기 생명·손해보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31만4339건에 달했다.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2013년 2분기에는 7만8366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한다.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감소효과는 큰 반면,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의 가입 효과는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적 연금의 가입율 하락은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을 보완토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arket index <23일>

지표	지수	변동
코스피	1936.09	(+15.27)
코스닥	589.31	(+10.89)
금리(국고채 3년)	2.03	(−0.03)
환율(원·달러)	1082.3	(−2.4)

중국 하나은행 적금 4일만에 1만좌 돌파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중국 하나은행의 '하나 168적금'이 출시 4일 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 중국통합법인 출범을 기념해 나온 '하나 168적금' 5년제 상품은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적금 금리로 지난 22일 1만7852좌를 판매하며 조기 매진됐다.

이어 2차 판매 중인 이 상품은 월 불입 5~3000 위안 한도로 신규고객인 경우 1명 가입 시 연 5%, 2명 동시 가입 시 2명 모두 연 6% 금리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 168적금'의 성공 비결은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높은 기존 금융 관행에 대해 중국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높게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과 중국인의 '부'에 대한 선호도를 간파한 현지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어 '一路發:부자되세요'의 발음을 따'一六八 적금'으로 판매해 국내 중국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중국 현지 은행과 협업을 통한 상품 판매로 성공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금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 '하나 168적금' 출시는 선진금융기법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하나은행 관계자도 "중국 하나은행은 지속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내 최고의 외자은행이 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금융 상품 출시를 통해 중국에서 금융의 한류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분양 홍수…정보 가장한 온라인 광고 '주의보'

뉴스·블로그·카페 등 포털 전 카테고리 활용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발품 팔아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의 분양물량이 예고되면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비교적 비용은 저렴하면서 접근성과 전달성은 뛰어난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정보를 가장한 광고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 저비용 고효율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식품·화장품·가전제품 등 생활밀착형 상품에서 주로 활용되던 바이럴 마케팅이 최근 1~2년 사이 분양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범위도 다양화됐다. 예전에는 중개업소나 영업사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 일만 따로 하는 대행사가 뉴스·카페·지식인 등 포털사이트 내 모든 카테고리를 활용하고 있다. 어떤 경로로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상품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홍보글을 보고 수요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사 형식의 상업광고인 '인포머셜'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로 제공돼 실제 기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3법'을 치면 '신대림2차 신동아 파밀리에 부동산 3법 통과 호재주목', '부동산3법 효과, 프리미엄 기대되는 알짜 당산역 롯데캐슬 잡아라', '부동산3법 효과, 화성 남양 명품 입지 양우내안애 계약 문의 늘어', '부동산3법 통과…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관심 높아지나?' 등의 기사가 줄줄이 검색된다.

부동산3법 통과로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등의 기존 뉴스들을 짜깁기해 해당 아파트를 광고하는 내용들이다. 기자 이름조차 없이 온라인팀, 미디어팀 등으로 올라오며 분양업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객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다.

블로그와는 달리, 상업적 성격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카페나 지식인도 일방적인 홍보글이 넘쳐나긴 마찬가지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인 것처럼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인양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답변을 달거나 경쟁 상품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바이럴마케팅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뉴스는 물론,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며 "상위 노출 노하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체와의 계약 단가가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바이럴 마케팅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돈을 주고 산 아이디로 글을 올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광고 글을 올린 사실만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무분별한 광고·홍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수요자 스스로도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고, 전문가나 주변 중개업소의 얘기를 듣고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홍대 상가 물량 나오면 계약" 이대 한 집 건너 임대 현수막

두 지역 상권 온도차↑

신촌역을 사이에 두고 홍대입구역과 이대역 상권의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상가의 지난해 4분기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17.2% 상승했다. 반면 이대 상권의 경우는 같은 기간 12.2% 하락했다.

홍대는 서교동 카페거리·연남동·상수·합정에 걸쳐 상권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글로벌 상권으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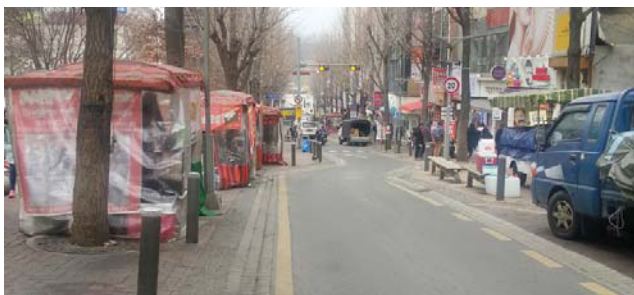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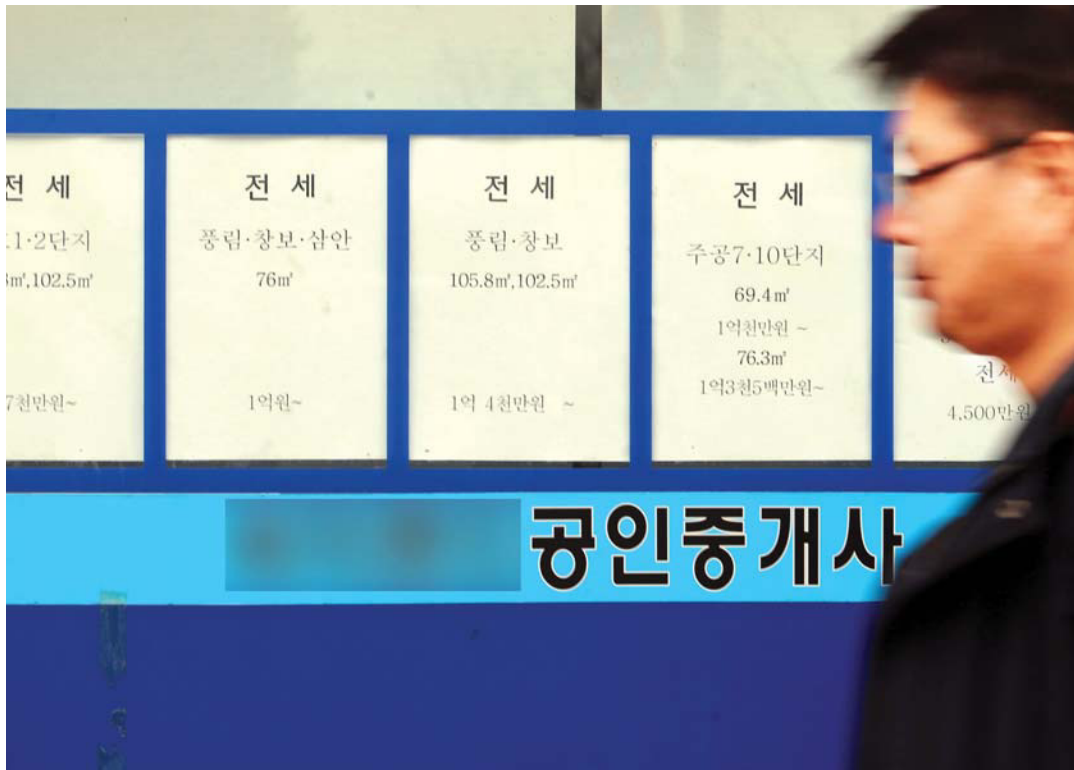
홍대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상가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공실이 많지 않고 물량이 나오면 금방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대 상권의 경우 이화여대 정문 왼쪽으로 나 있는 화장품 업종 밀집 지역 외에는 상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찾은 이 지역 상가에는 한 집 걸러 한 집 꼴로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점포 매물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고 하루 1000~1500명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 수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이대 상권에 기반한 업종이 인근인 홍대로 거의 뺏기거나 흡수됐다. 최근 중국 관광객 수요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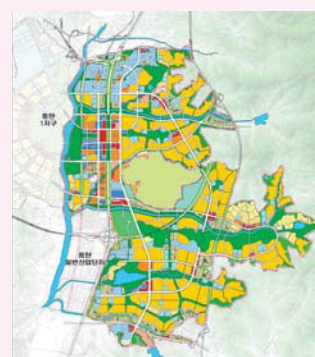
이대 인근 한 부동산관계자는 "이대 상권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이화여대 제2기숙사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기숙사를 포함 지하몰 내 식당부터 편의·문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 인근 상가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대 학생들이 상권 수요의 40~50%를 차지 한다. 원룸·고시텔 등 주거임대를 시작으로 상권이 죽어갈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국 관광객 효과를 보는 지역으로 이대가 꼽히는 것도 극히 일부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 업체 위주의 화장품 가게 밖에 살아 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지난 23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이화여대 정문으로 가는 길. 오가는 사람들이 없어 썰렁하다.

수도권 전세값 31주 연속 상승 25일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초에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3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화성 동탄2신도시 이달 말 첫 입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가 조성 7년6개월여 만에 입주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 EG더원 아파트 642가구를 시작으로 계룡리슈빌, 금성백조 예미지, 동탄센트럴자이, 모아미래도 등 5개 단지 2802가구가 이달 집들이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는 LH가 총사업비 16조1144억원을 투입,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 일원 2401만5000㎡(726만평)에 1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만6535가구, 내년 8022가구, 2017년 이후 7만18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LH는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등과 협조해 직행좌석버스, 지하철역 연계 시내버스 등 21개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지방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작년 말 입주지역의 상하수도와 전력,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됐으며 지구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이미 운영 중이다. 또 공영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8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도 건축이 마무리 단계라 올해 1학기 전·입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화성시와 함께 입주종합상황실을 개설해 초기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기 전 미리 불편 사항을 찾아 조치해 입주만족도가 높은 신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내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First Class
내나라 여행
하나투어 내나라여행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KOREA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한국여행업협회 2014.7~2015.12
01 100% 출발보장
1명부터 출발보장(일부상품 제외)
02 특급호텔 숙박
지역을 대표하는 특급호텔 사용
03 지역별 맛기행
정성이 가득담긴 지역별미식단 제공
04 전용버스 이용
내나라여행 전용버스 이용
05 전담가이드 배정
전일정 전담가이드의 세심한 진행
06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노옵션, 노쇼핑
오직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만을 추구
한국일주 7일
1,20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20,27일/3월 6,13,20,27일
일 정 서울–전주–부안(1)–담양–목포(1)–보성–남해(1)–진주–부산(1)–경주–대구(1)–안동–평창(1)–속초–서울
서부권일주 4일
6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20,27일/3월 6,13,20,27일
일 정 서울–전주–부안(1)–담양–목포(1)–보성–남해(1)–진주–서울
특 전 남해 힐튼 Golf&spa 리조트 이용예정
동부권일주 4일
6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23일/3월 2,9,16,23일
일 정 서울–진주–부산(1)–경주–대구(1)–안동–평창(1)–속초–서울
특 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인터컨티넨탈) 이용예정
남해안일주 4일
6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9,23일/3월 2,9,16,23,30일
일 정 서울–순천–여수(1)–남해(1)–통영–거제–부산(1)–양산–서울
특 전 여수 히든베이 호텔 이용예정
남도일주 3일
4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6,27일/3월 6,13,20,27일
일 정 서울–영광–목포(1)–해남–보성–광주(1)–담양–서울
특 전 목포 현대호텔,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이용예정
다도해일주 3일
4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10,24일/3월 3,10,17,24,31일
일 정 서울–목포(1)–해남–보길도–목포(1)–서울
한려수도일주 3일
45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일 2월 13,27일/3월 6,13,20,27일
일 정 서울–거제(1)–통영–거제(1)–하동–서울
제주도 여행
제주도 패키지여행 ★관광급 호텔 3일
244,600부터 (⊕1만원)/선택경비:있음
▶1월~3월 매일출발(설연휴 기간 제외) ●제주(2)
●왕복항공+관광급호텔 2박+조식 2회+중식 2회+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포함
제주도 자유여행 3일
276,900부터 (⊕없음)/선택경비:없음
▶1월~2월 매일출발(설연휴 기간 제외) ●제주(2)
●왕복항공+호텔 2박+조식 2회 포함

유럽계 자금, 국내 증시에 얼마나 들어올까?

ECB 대규모 양적완화…최대 40조원 유입 기대

유럽중앙은행(ECB)이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유럽계 자금이 대거 들어올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ECB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오는 3월부터 적어도 내년 9월까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매월 600억 유로씩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약 75조4000억원)씩 19개 회원국 국채 등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기존 0.0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양적완화 규모였다. 이로써 ECB는 예상치인 5000억~6000억 유로의 두 배 수준의 국채 매입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내년 9월까지 시행될 ECB의 양적완화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400조원 정도다. ECB는 미국·영국·일본에 이어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네 번째로 양적완화를 실시하게 됐다.

또 ECB는 물가상승률을 2%로 묶는 중기 목표를 기준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실상 기한을 두지 않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준의 양적완화는 한국 증시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유럽계 자금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ECB가 푸는 유동성 중 한국 경제 비중을 감안하면 40조원 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단순하게 유럽계 자금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만큼 유입된다면 40조원 수준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월간 2조원 정도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로화 약세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싸게 차입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ECB의 유동성 확대가 유로화 캐리 자금 이동을 촉진시켜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ECB의 양적완화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는 유동성 확대와 외국인 수급 개선에 힘입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ECB의 이번 양적완화가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간 '환율 전쟁'이 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로화 가치 급락으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를 위한 통화부양 조치를 강화하면서 환율 전쟁이 격화될 여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연초부터 불붙은 코스닥·코넥스

코스피 대형주 약세에 중소형주 주목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이 연초 상승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수년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시장과 달리, 코스닥은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현재 154조2000억원으로 지난 15일 기록한 153조8000억원의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거듭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날 582.27(종가)로 올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운 동시에 최근 1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600선 돌파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강세에 대해 코스피 대형주 약세에 따른 반사급부로 중소형주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또 정부의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소위 '1월 효과'로 인한 상승 탄력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연초(1월 2일~22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신라섬유(221.98%)였다.

신라섬유의 주가는 연초 3525원에서 지난 22일 1만135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어휴메딕스(111.06%), 씨씨에스(96.60%), 아이티센(90.25%), 용현BM(84.96%), 3S(82.05%), 백금T&A(81.99%), 파티게임즈(80.81%) 등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코스닥 종목을 보면 다음카카오(19.34%)가 1위를 차지했다. 컴투스(26.20%), CJ E&M(4.45%), 와이지엔터테인먼트(9.73%), 위메이드(22.49%), 에스엠(8.09%), 오스템임플란트(13.74%), 마크로젠(22.09%), NEW(22.71%), 파트론(9.79%) 등이 뒤따랐다.

중소·벤처 전문 증시인 코넥스시장도 날개를 활짝 폈쳤다. 코넥스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22일 현재 48억20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7월 개장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직전 거래대금 최고치는 지난해 11월 4일 25억5000만원이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넥스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늘어났다.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졌다.

연초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스탠다드펌(20%), 엔지켐생명(19.30%), 아이진(-7%), 엘스트로(22.4%), 베셀(9.14%) 등이었다.

특히 엔지켐생명과학, 아이진 등의 높은 기술력의 바이오 업체들이 높은 순위를 점한 것이 눈에 띈다.

거래대금 상위 5위는 엔지켐생명과학, 스탠다드펌, 아이진, 엠지메드, 베셀이었다.

/이보라기자 purple@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25일 서울 종로구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열린 '착한 목소리 오디션'에서 한 어린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를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오디션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 연초 어떤 다짐했나

대신·NH투자證 '새해 결의대회' 열어
임직원 한데 모여 한해 사업방향 확인

증권사들이 연달아 새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연초 기강 잡기에 나섰다. 회사의 경영철학을 증권사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면서 올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5년 전략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회사의 전 임직원이 한 데 모인 것은 3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대신증권은 올해 사업방향으로 리서치센터의 전망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꾸고,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과 생애주기에 따른 WM(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향후 미국 시장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관련 상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황을 분석하고 종목을 추천했다면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관리와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여의도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올 들어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통합으로 탄생한 NH투자증권은 이 자리에서 '원 컴퍼니'를 강조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통합 이후 처음 갖는 결의대회이므로 무엇보다 두 회사간 조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통합 증권사 출범 이전부터 등반과 식사, 워크샵 등 직원들간의 동질감을 높이는 행사를 벌여 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매해 범농협 차원에서 강조하는 청렴회사 구현과 정도경영 실천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 앞으로 고객 중심의 문화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신년 등반 등의 행사 형태로 결의대회를 대체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례적이라면 별다른 행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임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해 사업방향을 다짐하고 의식을 고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재계, 중국 부총리에 벌벌 떤다…왜?

왕양 방한에 정몽구·구본무 등 회장단 총출동
대륙진출 '줄서기' 총력 불구 입김 작용 '글쎄'

왕양 중국 부총리 만난 구본무 LG 회장.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재계 총수들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움직임에 벌벌 떨고 있다.

정몽구·구본무·이재용·신동빈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24일 공식 방한한 왕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와 잇따라 만나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재계 2·3세를 총망라한 총수들은 중국 진출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줄서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 재계 총수들의 이같은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왕 부총리가 '2015년 중국 관광의 해'를 맞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점과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 때문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시스템인 중국에서는 부총리가 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중국의 경우 대통령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 달리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상무위원회(7인)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왕 부총리는 2017년 차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왕 부총리는 지난 2012년에도 상무위원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개혁성향이 강해 결국 좌절된 바 있다.

결국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왕 부총리를 만나 한·중 산업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재계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치의 최고실세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빠진 채 왕 부총리가 일본의 경제인들을 면담한 것은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재계 서열 2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왕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중 경제 협력의 대표 기업으로서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중국 자동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대자동차가 허베이성 창저우시와 충칭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들이 중국 정부의 수도권 통합 발전 정책과 서부 대개발 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 경제 발전과 교류의 새로운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LG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이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어 감사하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 특히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LG와 중국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LG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광폭행보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 증가로 신라호텔과 용인 에버랜드 테마파크를 찾는 중국 고객들이 늘었다"며 "중국 지방 정부와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해 한중 교류 활성화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중장기적 사업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난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국 경제의 개혁과 성장을 진두지휘하는 왕양 부총리께 FTA를 맞아 양국의 경제 협력이 유통, 서비스,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

"태양광 시장수요 끊임없이 빠른 성장"

김동관 실장 다보스포럼 중 美 FOX TV 인터뷰서 밝혀

"유가하락이 태양광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세계 전력생산의 주원료인 천연가스는 특히 미국시장을 볼 때 지난 수년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장수요는 끊임없이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오후 2시 미국 전역에 방송된 FOX TV를 인터뷰를 통해 김동관 한화솔라원 실장은 최근 급격한 유가하락이 태양광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이 한화그룹이 지난 2013년 포럼이 열리는 다보스 콩그레스센터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앞에서 미국 FOX TV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한화 제공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모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가격도 하락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도 태양광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는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이자 최근 상무로 승진한 한화솔라원의 김동관 영업실장은 최근 저유가 상황이 태양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미국 폭스 비즈니스 TV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인터뷰 했고, 이러한 내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2시50분 방송됐다. 인터뷰는 한화그룹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한 다보스 포럼 회의장(Davos Congress Centre) 앞에서 진행됐으며 김 실장은 먼저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다보스포럼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안을 고민한 끝에 한화그룹의 미래 성장을 짊어질 태양광 사업부문의 발전시스템을 기증했다"며 "태양광 시스템은 흐린 날씨에도 약간의 전력 생산이 이뤄지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화그룹은 다보스포럼 회의장 지붕 1000㎡를 태양광 모듈 640장으로 꼼꼼히 덮어 총 28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김 실장은 '유가 하락으로 태양광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질문에 "흔한 오해"라며 "유가와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원유량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주원료인 천연가스의 경우, 특히 미국시장을 보면 지난 수년간 매우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지만 태양광 수요는 끊임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fun@

"2014년 기아차 판매왕들 한자리에!"

작년 기아차의 성공을 이끈 전국 각지의 판매왕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아자동차㈜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127명의 판매우수자와 배우자, 김창식 국내영업본부장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기아 스타 어워즈'를 개최했다.

기아차 망우지점의 정송주 영업부장이 '10년 연속 판매왕 1위'라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정 부장은 지난해 423대를 팔아 기아차 최고 판매왕에 올랐다. 하루에 한대 이상 꼴로 차를 판 것으로, 개인 연간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 정 부장은 2005년 235대로 판매 1위에 오른 이후 매년 판매왕 자리를 놓치지 않은 판매의 달인이다. 입사 이후 누적 판매대수는 4000대에 육박한다. 정 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5년 기아 스타 어워즈'에서 K7을 받았다.

정 부장은 "내수경기 침체와 수입차 공세 등으로 어려웠지만, 회사의 적절한 마케팅 전략과 시장 상황 예측으로 위축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도와주신 고객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종훈기자

아시아나 '별학교' 개최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초등학생과 가족 40명을 천문대로 초청해 '별학교'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과학 동아 천문대'에서 사전 응모를 통해 선발된 초등학생 참가자와 가족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천문학 기본 강의와 천체관측,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별학교에서는 ▲비행기 원리에 대한 소개와 별자리 및 행성에 대한 설명 ▲북극성을 찾는 방법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 등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이론 교육이 실시됐다.

또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과 목성, 별자리 등을 관측하고 천체투영관으로 이동한 뒤 8m 돔 스크린을 통해 가상의 별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필기자 roman@

삼성전자, '초격차' 반도체에 역량 집중

시스템 반도체까지 역전 노려

삼성전자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반도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경쟁업체보다 2년 정도 앞서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해 '초격차'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15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24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13조원 가량을 반도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투자금액 중 10조원은 D램 20나노 공정 전환과 3차원 낸드플래시 등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머지 금액을 시스템LSI에 집중해 흑자 전환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역전을 노리고 있는 카드는 14나노 핀펫 공정으로 양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위탁공정) 업계 점유율 1위 기업은 대만의 TSMC지만 삼성이 보다 진일보한 14나노미터 공정의 칩을 양산하면서 올해 독점 구조가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할 모바일 AP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한다. 낸드플래시를 양산 중인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20나노 8기가비트 GDDR5.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 등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반도체업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2조2000억원으로 IM사업부 영업이익(8조9000억원)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이제는 삼성전자를 종합 반도체 회사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스마트폰 실적 둔화는 지속되나 미세 공정전환에 따른 메모리 실적 확대 및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을 들며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란 반도체 업계가 몇 년간 호황을 누리면 뒤를 이어 몇 년간의 불황이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속설이다. WSTS(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는 2016년까지 반도체 전체 업황을 호황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에 대해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LG전자 폴더형 스마트폰 '아이스크림 스마트'.

중장년층 겨냥한 폴더폰 '아이스크림 스마트' 나온다

LG전자가 중장년층 소비자를 겨냥한 폴더형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와인스마트'에 이은 새로운 폴더형 스마트폰 '아이스크림 스마트'를 이번 주 LG 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첫 출시된 '아이스크림폰' 시리즈는 감성적인 파스텔톤 색상을 앞세워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제품이다.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카카오톡 물리 버튼을 적용했으며, 카카오톡 버튼은 사용 패턴에 따라 자주 쓰는 다른 메신저나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와인 스마트'에서 호평 받았던 가로 3줄, 세로 3줄의 시원한 화면 인터페이스와 휴대폰을 쉽고 빠르게 설정 할 수 있는 '간편설정' 등 직관적인 UX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설정에서 '닫을 때 앱 실행 유지' 기능을 지정해두면, 폴더를 닫아도 사용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는다. 또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8GB 내장메모리를 탑재해 고용량의 사진이나 멀티미디어 파일 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30만원 대 초반.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폴더폰과 스마트폰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 폴더폰"이라며 "중장년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와인스마트', 캐릭터 스마트폰 '아카' 등과 함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스마트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삼성전자 배당금 주당 2만원 달할 듯

2013년보다 40%가량 늘어날 전망

삼성전자가 실적공시와 함께 40% 안팎의 배당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3년 현금배당액 총액은 2조1600억원으로 주당 배당액은 1만4300원이다. 이번에 발표될 2014년 기말배당액은 2013년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조회공시 답변에서 "주주친화정책은 물론 국내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30~50%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근거해 중간치인 40% 안팎에서 배당액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40% 늘리면 배당금 총액이 3조원을 돌파하고 주당 배당액은 2만원 선에 도달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는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시가배당률이 1% 선에 머물러 3~4% 선인 글로벌 IT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2조원대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지분의 1.1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도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이다.

배당 확대는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을 덜고 내수경기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연간 시설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14조4000억원, 디스플레이 5조원 등 총 24조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투자로는 15조원 안팎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시설·R&D 투자도 지난해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삼성전자의 총 투자액은 삼성그룹 전체 투자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양성운기자 ysw@

앱 깔고 금융사고 보상보험 가입혜택 받고

삼성전자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식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멤버십 가입 고객을 위해 적립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을 관리해주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 적립·차감 내역, 이사·혼수 마일리지 프로그램, 무상서비스 연장, 영수증·쿠폰, 이벤트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까지 앱을 설치하면 삼성화재 금융사고 보상보험 가입과 추가 포인트 지급 혜택이 있다.

삼성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삼성전자 멤버십 앱은 안드로이드 4.0 또는 iOS 7.0 이상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과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던 많은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며 "편리함을 더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LGU+ 등 이통3사 '단통법'에 마케팅비 증가?"

아이폰6 대란·리베이트 확대 원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된 단통법이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한 LG유플러스는 지난 4분기 마케팅비로 5182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8.6% 증가하며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비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총 마케팅비는 2조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김영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은 이처럼 지난해 마케팅비가 증가한 데 대해 "아이폰6 출시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전화 지원금 증가가 원인"이라며 "기기변경·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비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 역시 단통법으로 인한 마케팅비 감소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KT의 4분기 마케팅비가 각각 8000억원대, 74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3분기와 비슷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통신시장이 얼어붙고 고객 유치가 지지부진해지자 판매촉진금(리베이트)을 늘린 것이 마케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통 3사는 지난해 11월 초 애플 아이폰6가 출시하자마자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최대 80만원대까지 올려 유통점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 이 정황을 파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이통 3사에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해당 유통점에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마케팅비가 줄지 않은 것은 단통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15개월 이상의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도 마케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으로 규제 대상인 지원금은 변동성이 줄었으나 리베이트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수준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통제에 들어가면서 법이 안착되면 마케팅비도 점차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완생 위해선 전문성 갖춰야"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직원과 가족 100여명을 초청한 행사에서 "맡은 분야에서 최고전문가가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도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균 LS산전 회장.

구 회장은 "지난해 화제가 된 드라마 '미생'을 유심히 시청했다"며 "선배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미생이 아닌 완생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 고민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공 '장그래'의 열정과 끈기는 마음에 들었지만 결국 회사에서 완생이 되진 못하더라"며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누군가를 이해한다(understand)는 것은 '아래(under)에 서서(stand) 경청한다는 뜻'이라며, 조직의 허리인 과장으로서 소통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리더의 기준은 직위나 호칭이 아닌 생각대로 행동하는 능력"이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가 되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고경영자(CEO)인 구 회장을 비롯해 최고운영책임자(COO) 한재훈 사장, 최고인사책임자(CHO) 박해룡 상무 등 주요 임원도 부부 동반했다. /양성운기자 ysw@

SK텔레콤-삼성전자, '3밴드 LTE-A' 공동마케팅

'받을 건 받자' 프로모션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공동 마케팅으로 '받을 건 받자' 프로모션을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 '받을 건 받자' 프로모션은 '갤럭시노트4 S-LTE' 구매자는 물론, 삼성전자 단말기를 이용 중인 SK텔레콤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LTE 100 요금제'를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 S-LTE 공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상한금액인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4 S-LTE 구매자들은 최대 지원금 30만원 적용시 65만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유통망 지원금 추가 15% 제공 시 61만2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SK텔레콤은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밴드 LTE팩'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4 S-LTE 구입 고객 모두에게 제공한다. 밴드 LTE팩은 클라우드 게임, 동영상 멀티미디어, 실시간 지상파 방송 등의 콘텐츠를 데이터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 서비스 패키지다.

갤럭시노트4 S-LTE 구매자는 3월 15일까지 T멤버십 온라인몰 '초콜릿'에서 '밴드 LTE팩'을 신청하면 4만원 상당의 혜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기어S 반값 프로모션'도 시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기어S' 공시 지원금이 14만9000원으로 책정돼 고객은 스마트워치 '기어S'(출고가 29만7000원)를 14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스마트폰을 무전기로!"

LG유플러스, 'U+ LTE무전기' 앱 출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쓸 수 있는 'U+ LTE무전기' 앱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U+ LTE무전기' 앱은 고음질 코덱(압축기술)을 사용해 선명한 음질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LTE 네트워크나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곳이라면 대화상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음성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U+ LTE무전기 앱의 가장 큰 강점은 간편함이다. 자판을 활용해 문자를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원터치로 간편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일대일 대화는 물론, 최대 500명까지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지도상에 있는 가족·친구·지인의 위치가 확인돼 약속장소 잡기 등도 한층 수월해진다.

음성 기반으로 대화가 이뤄지다 보니 텍스트 기반의 메신저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개성, 말하는 뉘앙스까지도 음성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별도의 이용요금은 없으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된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이용해도 한 달에 430MB에 불과해 부담도 적다.

U+ LTE무전기 앱은 U+ 전용폰으로 26일 출시되는 LG전자 '아이스크림스마트'에 최초 탑재된다.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다음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U+스토어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현재 LG유플러스 고객만 이용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타 통신사를 사용 중인 고객에게도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KT스카이라이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KT스카이라이프가 폐수신기 매각자금을 지역공헌사업에 투척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마포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공부방 개설사업에 폐수신기 매각자금 1500만원과 교육방송 시청을 위한 위성방송 상품을 무상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문화센터는 지난 23일 청소년 공부방 '꿈터'의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공부방을 이용할 청소년들을 비롯해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운영본부장, 김진수 스카이라이프TV 경영지원팀장, 권두승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이사장, 이희수 망원청소년문화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상암동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추진한 지역 공헌사업의 일환이다. 마포구청 청소년지원과와 연계해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했다.

폐수신기 매각자금은 지난해 7~10월 용도 폐기된 폐수신기 1만7000여 대를 수거한 뒤 되팔아 마련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에도 폐수신기 매각자금을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윤용필 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비는 고객 처리가 곤란한 폐수신기를 고객의 동의를 얻어 재활용업체에 팔아 마련한 것"이라며 "고객 민원 해결, 환경오염 해소, 지역 봉사 등 1석 3조의 사회공헌활동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이재현 회장 2선 물러나 건강 챙겨야"

유전병 등 심각, 사면해도 경영복귀 난망…"대리인 찾아야"

재계 14위 CJ그룹의 앞날이 이재현 회장(56)의 장기 부재로 안갯속이다.

이 회장의 경영복귀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상고심이 진행중이어서 사면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이 회장이나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 사면 가능 시기는 최소한 5~6개월 뒤로 미뤄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 회장을 사면하려면 대선 공약을 파기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2월 말~3월 초 있을 대법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면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셈이다.

더구나 이 회장은 삼성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치명적인 고질병에다 신장이식 후유증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상태다. 한 개인 문제로 보더라도 2선으로 물러나 건강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CJ그룹에는 이 회장 외에도 아버지인 이맹희 명예회장(85)은 차치하더라도 어머니 손복남 고문(83), 삼촌 손경식 회장(77),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58) 등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핏줄들이 많다. 아직 사회 초년병이지만 아들(선호·25)과 딸(경후·30)도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채욱(70)·김철하(64) 등 탁월한 능력의 전문경영인들도 포진해 있다. 이 회장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5일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해 이달 발표했어야 할 연간 투자·채용 계획과 정기 승진 인사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CJ그룹이 1월 그룹 주요 계열사의 국내외 연간 투자·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두번째다. 한해 동안 정기 승진 인사가 없었던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CJ그룹은 '그레이트 CJ'(2020년 매출 100조·영업익 10조 원 달성)라는 목표 아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2013년 7월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주요 경영계획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신규 투자나 신규 시장 진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 CJ그룹이 지난해 내부적으로 세웠던 2조4000억원의 내부 투자 계획은 1조9000억원만 집행됐다. CJ대한통운의 물류허브 구축, 아미노산 공장 인수, CJ CGV의 국내외 점포 개장 등의 투자가 줄줄이 무산됐다.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영 등의 인수·합병과 해외 진출도 추진하다 접은 상태다.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 직후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부회장과 외삼촌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 회장의 측근인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과 이관훈 전 CJ그룹 사장, 이채욱 CJ 부회장 등 5인의 그룹경영위원회를 꾸려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 이관훈 전 사장이 위원회에서 빠졌고 이미경 부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주치의가 있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는 가끔씩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인 이채욱 부회장과 김철하 사장이 그룹경영을 콘트롤하고 있지만 그룹의 지주회사 (주)CJ의 지분 42.2%를 갖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공백 상태에서 그룹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3월 예정돼 있지만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의 결과가 나와도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난망해 보인다.

대법원이 3월 판결에서 이재현 회장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 소송은 곧바로 끝나고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을 특별사면해줄 수 있는데, 이 회장도 이 경우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이 회장이나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할 경우에는 고법으로 다시 사건이 돌아간다. 이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의 확정도 이 소송 기간(보통 5~6개월)만큼 늦어지고, 형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도 받을 수 없다.

사면을 받아도 무엇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시한부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가 악화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신장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 등으로 우울증, 공황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부인 김희재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장, 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 작업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딸 경후씨와 아들 선호씨가 각각 CJ오쇼핑 과장과 CJ제일제당 사원으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지만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아직 어리다.

이에 따라 약 70개 계열사를 거느린 CJ그룹이 투자·채용 계획을 제대로 진행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재현 회장이 퇴임하고 이 회장을 대신할 콘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유한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그동안 이재현씨가 경영을 훌륭히 잘 해 왔으나 이재현·이미경 두 남매가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오너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기 원통하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상장사이다 보니 개인적 기업이라기보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안하다. 안타깝지만 이재현씨와 이미경씨 본인들을 위해서도 경영에서 손을 뗄 시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한국 재계와 경제계에 미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손경식씨에게 항구적으로 CJ그룹을 맡기기에는 연령도 있어 어려워 보이며 노추(老醜)로 보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인재들이 얼마든지 많으며 시장에서 저 정도면 CJ를 살릴 수 있고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오너 1인 체제로 설탕·밀가루 회사를 대한민국 대표 생활·문화기업으로 탈바꿈시킨 CJ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염지은기자 senajy7@metroseoul.co.kr

유통업계…설 대목을 잡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목 잡기'에 돌입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힘든 만큼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비싸도 잘 팔린다"…프리미엄 선물세트 '눈길

최근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는 굴비와 한우 등 고가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 대비 3배, 추석에 비해 2배 이상 늘리며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등 전국 유명 산지에서 어획한 전체 물량의 1% 수준에 해당하는 황제굴비와 황제갈치 세트 물량을 2~3배 확대했다. 더불어 국내 사과 중 상위 1% 만으로 구성된 노블 사과와 950g 이상의 최고급 배만 선별한 왕배 세트 등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선물세트로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과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0% 가량 늘려 준비했다. 늘어나는 수입 맥주 수요를 겨냥해 호가든 맥주세트, 기네스 맥주세트를 선보이며 필리핀산 망고세트, 이스라엘산 자몽세트 등 차별화된 수입 과일세트도 준비했다. 더불어 냉장 구이용만을 엄선한 한우 1++ 프리미엄 세트, 경남 밀양 대형 사과로 구성한 명품 얼음골 자이언트 사과 세트 등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설을 맞아 신규 차별화, 환경 친화, 건강 친화, 새로운 맛 등 4가지 콘셉트의 차별화 선물을 준비했다. 드라이에이징 선물세트로 거제에서 어획한 특대 대구를 말려 건조한 거제 외포 건대구 세트와 최고급 한우를 4~6주 건조 숙성시킨 드라이에이징 한우 스테이크를 선보인다.

이처럼 유통업계 고가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지난해 추석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해 추석 선물 실적을 가격 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이상 고가 매출이 32%, 10만~30만원 사이의 선물이 6%, 5만~10만원 대가 24% 늘었고 반면 1만원 이하의 상품 매출은 12%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설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와 함께 매년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통해 설 특수를 최대한 활용해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사과, 막걸리까지"…소비추세 따라 이색 세트 등장

소비추세의 변화에 따라 설 선물세트도 해마다 변하고 있다. 25일 롯데마트가 지난 5년간 연도별 설날 선물세트 살펴본 결과 소비 추세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이색 세트가 등장했다.

2010년 설에는 '막걸리 선물세트'가 롯데마트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는 2009년 막걸리 국내 소비가 늘어 시장 규모가 4200억원으로 커졌고, 한류 열풍과 함께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늘어나는 등 막걸리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2011년에는 미국의 경기 호조로 코스피가 2천100선을 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자 고가의 선물세트들이 대거 출시됐다. 금가루를 사과나무에 뿌려 재배한 금 사과 세트나 프랑스산 고가 와인 세트 등이다.

2012년에는 스마트 기기 열풍 속에 아이패드2와 갤럭시 탭 10.1 등 태블릿 PC가 설 선물세트로 나왔다. 2013에는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자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는데 생활용품을 직접 선택해 만드는 DIY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45개국으로 확대되고, 직구, 병행수입 등 이슈가 설 선물세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다양한 나라의 수입산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명절은 대형마트 연중 최대 대목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다"며, "올 설에도 새롭고 차별화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마약 옥수수' 잘 나가네 5일 홈플러스 킨텍스점에서 모델들이 '마약 옥수수' 요리 및 관련 식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레시피 기반 푸드 컨텐츠 제공 서비스인 올어바웃푸드에 따르면 최근 '마약 옥수수' 레시피 조회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며 '허니버터칩' 레시피에 이어 고객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제일모직 준지, 2015 가을·겨울 파리컬렉션 개최 제일모직의 남성복 브랜드 준지(Juun. J)가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2015년 가을·겨울 파리컬렉션을 개최했다. 정욱준 디자이너는 '카키, 제 2의 블랙'을 주제로 준지만의 정교한 테일러링과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38착장의 새로운 밀리터리룩을 선보였다. /제일모직 제공

'시스루'에 꽂힌 외식업계

애슐리 퀸즈 '라이브 스테이션' 운영…맥도날드 '내셔널 오픈 데이'

최근 추운 날씨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식업체가 '시스루(see-through)' 마케팅으로 청결함을 어필하고 나섰다.

오픈 키친 콘셉트를 적용해 식재료와 조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직접 조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 것. 애슐리 마케팅 팀장은 "최근 건강한 먹거리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조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루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애슐리가 론칭한 프리이엄 뷔페 '애슐리 퀸즈'는 소비자들이 직접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섹션별로 담당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바리스타 바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전문 바리스타가 코스타리카 고지대에서 재배되는 최상급 원두 타라주를 활용해 고급 커피를 내려준다.

아워홈의 자회사 캘리스코는 지난해 12월 오픈 키친을 도입한 타코벨 1호점을 열었다.

타코벨 관계자는 "보이는 주방은 아시아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라며 "글로벌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제품의 신선도를 보장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객들을 직접 주방으로 초대해 청결한 식재료와 위생적인 주방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맥도날드는 최근 전국 27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내셔널 오픈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내셔널 오픈 데이는 맥도날드가 식재료 보관, 위생 관리, 조리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고객들은 식재료가 보관된 건자재실, 냉장·냉동고, 주방 등을 살펴보며 고품질의 식재료와 위생 관리 시스템을 체험했다고 맥도날드 측은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불황에 유아용품도 '실속형' 대세

사용 연령대 높인 유모차·다용도 유아 침대 등 인기

고가 제품을 출시하던 유아용품 업계에도 장기 불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신체 발달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제품일수록 부담이 커 엄마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가 사용 연령대를 높이거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속속 내놓으며 실속파 엄마들을 공략하고 있다.

유모차는 보통 디럭스형과 절충형을 따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대로 신생아부터 약 5세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컴팩트형 디럭스 유모차 '미니버기'는 디럭스의 안정감과 절충형의 실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170도 침대형 시트를 장착해 신생아의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 주며 5.9kg의 가벼운 무게로 실용성과 이동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호크 베타 식탁의자'(사진)는 생후 6개월부터 1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목 식탁의자로 좌판 4단계, 발판 3단계 등 성장에 맞춰 단계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식탁을 이용할 수 없는 12개월까지는 식판을 부착해 아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며 7세 이후에는 안전가드와 발판을 모두 제거해 일반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

크림하우스의 '아이스캐슬'은 범퍼침대 뿐만 아니라 놀이매트, 유아소파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 성장에 따라 단기간 사용하고 방치되기 쉬운 유아용 침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수면시간이 많은 신생아 시기에는 넉넉한 대형 사이즈로 펼쳐 유아용 범퍼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시기에는 범퍼가드가 둘러진 놀이매트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을 때에는 유아용 소파로 사용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사용할 수 있는 연령도 한계가 있어 부담이었다"며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신학기 특수 잡아라"…책가방 전쟁 치열

스포츠·아웃도어 등 1월 신제품 출시 봇물

패션 업계를 비롯해 스포츠·아웃도어까지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학기 수요를 겨냥한 책가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월에 한해 책가방 매출의 70% 가량이 몰리는 만큼 1월들어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월 설 명절이 끼어있어 선물 수요로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포니는 저학년을 겨냥한 'K-리피'를 비롯해 'K-블레이드' 'K-모리스' 등 책가방 6종을 출시했다.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해 견고하고, 스퀘어 형태의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 활용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컬러블록 트렌드를 반영해 청색과 오렌지, 핑크와 민트 배색을 사용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살렸다.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EXR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벙커백'을 출시한다. 새로운 후드와 포켓 형식을 적용했으며 앞면과 옆면에 멀티포켓을 도입해 수납이 용이하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도 이달 초등학생용 가방 '이뉴'를 내놓았다. 키즈용 백팩과 신주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가방, 필기구 파우치 등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가방 전면과 측면에 포켓을 만들어 수납 기능을 강화했다고 아이더 측은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자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휠라코리아, 블랙야크 키즈, 섀르반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상품 물량을 쏟아냈으며 빈폴키즈는 지난해 9월 신학기 책가방 예약판매를 한 바 있다.

/섀르반 제공

/김수정기자 ksj0215@

주방에 부는 스테인리스 바람

중금속·유해물질 걱정 없고 내구성 강해

스테인리스는 쉽게 녹슬지 않고 가열해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생기지 않고 내열성이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주방·생활용품 업계가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타파웨어 브랜즈가 출시한 '레인보우 쿠커'(사진)는 바닥면과 몸체의 이음 없이 통 7중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통 7중의 스테인리스로 인해 수증기 막이 형성되는 수막효과가 발생한다. 수막효과는 음식을 조리할 때 냄비와 뚜껑 사이에 수증기 막이 형성돼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아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재료 자체의 수분만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 코리아의 탁상용 스테인리스 포트 'THS'는 진공 단열 구조의 보온, 보냉 전용 포트다. 오랜 시간 물이나 음료를 보관해도 온도 변화폭이 작고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써모스 측은 설명했다. 입구 크기가 넉넉해 세척하기 편하고 원터치 레버 마개가 분리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일 생활가전 브랜드 세버린도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된 '밀크 프로더'를 출시했다. 원터치 우유 거품 제조기로 컵과 본체로 구성돼 있다. 우유를 데우기만 할 때는 매끄러운 원 모양 믹싱 패들을 사용하고 우유 거품을 만들 때는 톱니 모양의 거품 패들을 사용하면 된다. 사용 후에는 컵을 분리해 세척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마술 배우고 가족애 쌓는 어린이 체험학습

'2015' 숫자로 알아보는 '이상한 마법학교2'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에 고민에 빠진 학부모들을 위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교육 마술 체험전 '이상한 마법학교2'를 '2015'라는 숫자를 통해 소개한다.

◆2-그 두 번째 이야기!

EBS와 함께하는 이상한 마법학교는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 저기압과 고기압, 안개의 원리 등이 시즌1 프로그램에 추가됐으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마술 등은 초등학교 교과목과 접목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유니세프도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상을 관람하고 구호물품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장도 마련돼 있다.

◆0-0~100세까지 모두가 즐긴다!

이상한 마법학교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함께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연령이 함께 하는 가족 체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마술에 대한 재미와 원리를 배우는 즐거움을, 부모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애와 진한 웃음을 선사한다.

◆1-어린이 전시 체험전 예매율 1위!

2013년 처음 시작된 이상한 마법학교는 8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어린이 전시 체험전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마술이라는 콘텐츠에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EBS 자문위원의 검수를 거쳐 교육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올해도 연일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1위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5-오감만족 종합 선물세트!

이상한 마법학교는 보는 것에만 그치던 다른 체험전과 달리 알차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어린이 마법학교를 체험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오감만족 종합 선물세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한편 이상한 마법학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예매는 인터파크와 옥션, 예스24 등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577-3363·www.icanmagic.com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또 작심삼일? 금연 성공 위한 팁!

금연 보조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금연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천은미(사진)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에게서 금연을 위한 얘기를 들었다.

사실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니코틴 중독이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주의력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니코틴의 작용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단 증상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즉 흡연을 하면 할수록 흡연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패치나 껌 등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니코틴 패치는 뇌에 니코틴을 서서히 전달해 금단 증상을 줄여준다. 또 경구약물인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결합해 금연을 돕는다.

아울러 최근 흡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타르는 없지만 니코틴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담배만큼 많아 인체에 해롭다. 금연 보조제나 흡연 대체요법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

이와 함께 금연을 함께할 친구나 동반자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금연 초기 한 달 정도는 술자리를 삼가고 커피 대신 생수나 녹차 등을 마셔야 한다. 게다가 금연 후에는 체내의 니코틴 감소로 체중 증가가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천 교수는 "하루 10개 이상의 담배를 피웠거나 니코틴 의존도가 심한 경우, 혹은 수차례 금연 시도에 실패했다면 금연 상담 전문가나 금연 클리닉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수다'의 견과류 선물세트 인기

설 선물로 관심 높아…맛과 건강을 동시에

다가오는 설날 선물을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수다'의 설 선물세트가 주가를 높이고 있다.

수다의 대표적인 선물세트인 수제 견과류바가 그 주인공으로 깔끔한 포장은 물론 해바라기씨, 크렌베리 등 다양한 재료가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선물로 제격이다.

아울러 수다의 견과류바 선물세트는 8개 구성이 1만2000원선, 20개 구성이 3만원선 등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수다는 매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주문배송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한 찻집 '수다(手茶)' 블로그(http://blog.naver.com/suda_health)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최대 55% 할인"

강강술래, 한우 등 매장 인기품목 40여종 판매
중저가세트 늘리고 할인폭 키워 실속구매 지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최대 55% 할인율을 제공하는 설날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2만원대 가공식품부터 30만원대 한우명품 세트까지 품격과 정성을 담은 약 40여 종의 다양한 제품과 가격의 상품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49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9만9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4만6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품목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5만4000원, 한우불고기2호(2.25kg) 7만2000원, 술래양념1호(16대) 9만원, 술래양념2호(24대)는 12만6000원에 판매한다.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9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는 12만6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2.4kg/냉동)는 17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선물세트의 신선도 유지와 변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과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해 외부의 열을 이중으로 차단함으로써 아이스팩(냉매제)의 냉을 오래 유지시키는 3중 포장방식을 적용했다.

/박지원기자 pjw@

어린이 건축교실 지도사 과정 신설

한양대 사회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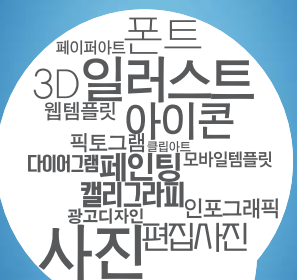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어린이 건축교실 창의교육 지도사 과정을 설립했다.

건축·디자인·아동교육 전문가 등이 다양한 건축물을 바탕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재를 제작했다. 또 수업은 다양한 교구재를 이용해 진행된다.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면 방과후 건축교실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한양대 총장 명의의 자격증은 물론 한국융합교육협회 회원 자격을 얻게 된다. 문의: 02)2220-1522

/황재용기자

변신 짱, 연비 짱… 짱짱한 '더 뉴 i40'

중형 디젤 최초로 7단 DCT 탑재… ℓ당 16.7㎞ '동급 최고'
전면부 싱글 프레임 헥사고날 그릴 적용… 당당한 이미지

현대차 i40가 신규 파워트레인 탑재로 한층 향상된 성능을 구현, 수입 중형 디젤차시장의 돌풍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6일부터 동급 최고 연비에 우수한 상품성을 겸비한 '더 뉴 i40'의 판매에 돌입한다.

i40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i40'는 세단과 왜건 두 모델에 유로 6 법규 기준을 충족시킨 신규 디젤 엔진을 적용했다. 국산 중형 디젤차로는 최초로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탑재해 동급 최고 16.7㎞/ℓ 연비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중형 디젤 최초로 '더 뉴 i40'에 탑재된 UⅡ 1.7 e-VGT 디젤 엔진은 엔진의 작동조건에 따라 배기 유량을 변화시켜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효율 전자식 가변 터보차저(VGT)를 적용했다.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을 개선함은 물론, 더욱 엄격해진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 6기준을 국산 중형차 최초로 충족시켰다.

ISG 시스템까지 함께 탑재해 기존보다 10.6% 향상된 16.7㎞/ℓ의 복합연비를 달성했다.(세단 모델, 16인치 타이어 기준)

이와 함께 '더 뉴 i40'는 디젤 엔진의 터보효율 증대와 연료 분사압 조절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저중속 실용영역에서 실 주행시 체감 가속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전면부에 싱글 프레임 헥사고날 그릴을 채택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당당함과 무게감을 구현했다. 아울러 HID 헤드램프는 광원 하나로 상향등과 하향등에 모두 쓰는 '바이펑션(Bi-Function)' 방식을 채택했다. 램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디자인을 고급화했다. 포그램프에도 LED를 적용해 시인성을 더욱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7단 DCT는 연비 개선 효과와 함께 변속 때 소음이 적고 빠른 변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격은 세단 모델의 경우 ▲유니크 2495만원 ▲PYL 2660만원 ▲디 스펙 2875만원, 왜건은 ▲유니크 2595만원 ▲PYL 2760만원 ▲디 스펙 2955만원이다.(디젤 모델은 250만원 추가)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정몽구 회장, 왕양 中부총리에 어떤 말?

정 회장 "신공장·부품협력업체 정착" 당부
왕양 부총리 "현대차-중국 협력 관계 지원"

현대차그룹 정몽구(사진 오른쪽) 회장이 24일 오전 중국 왕양(왼쪽) 부총리를 만나 한·중간 자동차산업 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양 부총리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로 무역·관광·농업·대외 등 경제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 정부 핵심 인사다.

정몽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이 부품협력업체들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물론 교역 규모가 확대되는 등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중 경제 협력의 대표 기업으로서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중국 자동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가 허베이성 창저우시와 충칭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들이 중국 정부의 수도권 통합 발전 정책 및 서부 대개발 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 경제 발전과 교류의 새로운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왕양 부총리는 "현대차그룹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협력 관계가 30년 후는 물론 50년, 그보다 더 먼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베이징과 옌청, 쓰촨지역 총 7개의 공장에서 연간 19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현대차 허베이공장·충칭공장, 기아차 둥펑위에다 3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2018년 연간 270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의 중국 동반진출을 통해 국내 부품업체들의 중국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121개의 1차 협력사를 비롯 417사의 부품업체들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중국에서 주요 부품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신공장들을 통해 중국 수도권과 중서부지역 판매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매년 10% 이상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명실상부 중국 톱 3 승용차 메이커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김종훈기자 fun@

회장님의 차 K9 퀀텀…'힘·정숙성·가격' 올킬

시승기

K9 퀀텀

시속 180㎞ 돌파에도 동승자가 못 느낄 수준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K9이 최상급 주행성능과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5000cc 심장을 탑재한 'K9 퀀텀'은 그간 기아차의 고민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K9은 2012년 시장에 데뷔한 이후 줄곧 기아차의 최상위 세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6기통(V6) 3.3L 엔진과 3.8L 엔진을 탑재한 2가지 트림만을 출시해 경쟁모델인 현대차 에쿠스가 아닌 제네시스 급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2015년형 K9 퀀텀 모델은 에쿠스는 물론 수입 대형 세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힘과 주행성능이 돋보인다. 크롬 재질의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웅장함을 풍기는 가운데 그릴 하단부에 자리잡은 'V8 5.0' 로고는 K9 퀀텀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눈에 띈다. 8기통 5000cc엔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고급스럽다. 19인치 크롬 휠과 길어진 리어램프와 범퍼는 초대형 세단으로서의 품격을 물씬 풍긴다.

실내에는 일부 고급차종에만 쓰이는 나파가죽 퀼팅 가죽시트 등 프리미엄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리얼우드가 곳곳에 사용된 내부 마감재와 최고급 알루미늄 가이드라인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메모리폼 소재를 적용한 헤드레스트는 승차감을 한껏 높이는 역할을 했다.

25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부천시까지 경인고속도로 왕복 60㎞ 구간을 달리는 동안 거침없는 힘과 대형세단의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보여줬다.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5000cc 고배기 엔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시동이 켜진지도 모를 정도로 정숙해 동급 최상위 세단에 어울리는 수준이었다. 가속페달을 밟자 중량 2톤이 넘는 큰 덩치가 무색할 정도로 차고 나가는 힘이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일반도로에서는 조용한 집무실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정숙하다. 시속 180㎞를 돌파하는 고속구간에서도 풍절음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스포츠모드로 바꾸자 5.0리터 엔진의 힘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가속페달을 밟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도로의 제한속도에 도달했다. 더 깊숙이 페달을 밟자 고개가 젖힐정도의 가속감을 보였다. 하지만 고속에서도 무게중심이 낮게 깔리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었다. 뒷자석 동승자는 시내 주행과 같이 별다른 소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성능과 승차감은 최고출력 425마력, 최대 토크 52.0㎏·m에 이르는 강력한 엔진과 완벽한 기아차의 차음설계 기술때문으로 보인다.

너무 안락한 덕분이지 잠시 졸리면서 순간 차선이탈을 하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시트에는 진동이 느껴져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 차선을 바꿀 때도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보조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간 60㎞ 구간 동안 연비는 공인연비(7.6㎞/ℓ)수준의 7.0㎞/ℓ를 기록했다. 시험 삼아 급가속을 했다는 점에서 연비도 만족스러웠다. 특히 억대를 훌쩍 넘기는 동급 경쟁모델인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차량과 비교해서 862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도 매력적이다.

/김종훈기자

“시기 재면 다작할 수 없어요”

‘피노키오’ 믿고 보는 배우 이종석

“부드러운 男 이미지 제한적… 강한 영화 항상 생각”
“집에 있는 걸 좋아해… 친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

배우 이종석(26)의 깊은 눈빛은 긴 속눈썹으로 완성된다. 그는 아이라인을 그린 듯한 눈매에 대해 “얼굴이 유난히 동그란 날 살짝 그린다”고 비밀을 털어놨다.

“살이 찌면 턱선부터 쪄요. ‘닥터 이방인’ 때는 날카로워 보이고 싶어 다이어트를 했죠. 근데 ‘피노키오’에선 외모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반부터는 계속 먹었고 살이 쪘어요.”

부드러운 남성미가 매력이지만 정작 그는 “이미지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남성적인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말랑한 멜로더라고요. 자신 있기도 하고요. 들어오는 대본이 남자 느낌보다는 로맨틱 코미디 위주예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이미지가 제한적인 거 같아요. 나이 들면 변하는 부분이 겠죠. 연기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다면 연기로 깨려고 합니다.”

16세에 모델로 데뷔한 후 SBS ‘검사 프린세스’(2010)에서 배우 신고식을 치렀다. ‘시크릿 가든’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학교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닥터 이방인’으로 연기력과 흥행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종영된 ‘피노키오’로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전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는 ‘피노키오’ 촬영을 시작하기 전 연기 선생님을 찾아갔다.

“윤희영 선생님이에요. ‘시크릿가든’ 이후로는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았죠. ‘닥터 이방인’ 때 슬럼프가 왔었어요. 선생님께 ‘피노키오’ 대본 들고 갔고 신인들과 함께 교육받았죠. 복학생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잘 하나 보자’라며 제 연기를 보던 그 눈빛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죠. 정말 창피했어요.”

중화권에서도 연기력을 인정 받은 그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팬과 만난다.

“팬미팅 할 때 정말 미안해요. 노래를 잘하지 못하니까 뭘 보여줘야 할 지 모르겠어요. ‘명장면 따라 하기’ 이벤트에서 연기하는 건 죽을 거 같아요. 파트너로(무대에 올라온) 팬도 민망해하는 게 느껴져요. 소통을 고민 중이고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팬은 점점 늘어나는데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회사 측에선 팬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하죠. 딜레마예요. 인사 안 해주면 팬이 서운해하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면 느껴져요.”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한 그는 “무심한 형,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데뷔하고 한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명절에 동생들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멀어진 거 같아 속상해요. 막내 여동생은 저랑 진짜 안 닮았어요. 밖에 나가서도 (이종석 동생)이라고 티를 안 내요. 시크한 성격이라 시집을 못 갈 거 같아 걱정입니다. (웃음)”

다작하는 이유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원래 외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지 않고 작품을 하는 이유죠. 작품 속 저를 보면 대사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 저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인데 드라마에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배우는 연기하는 직업이잖아요. 대박 쳤다고 컴백 시기를 재다 보면 많은 작품을 할 수 없게 되죠. 몸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작품 계속 할 겁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디자인/최송이

star bag

교포 출신 대학교수와 열애

가수 **박정현**이 사랑에 빠졌다. 지난 23일 오후 박정현 측 관계자는 박정현이 현재 캐나다 교포 출신의 대학교수와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40대 중반으로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두 사람은 해외 생활을 한 공통점이 있어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식

배우 **남상미**가 지난 24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동갑내기사업가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남상미 측은 신랑에 대해 “순수하고 건실한 청년”이라며 “남상미는 신랑의 소탈한 모습과 진실함에 반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풍문으로’ 캐스팅

그룹 엠블랙을 탈퇴하고 본격적인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이준**이 SBS 새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 캐스팅됐다. ‘풍문으로 들었소’는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유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 드라마다.

‘샤인 유어 라이트’로 컴백

가수 **박효신**이 다음달 세 번째 싱글 ‘샤인 유어 라이트’로 컴백한다고 25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샤인 유어 라이트’는 박효신과 영국 출신 밴드 마마스건의 보컬 앤디플랫츠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작업한 노래다.

커다란 눈으로 꿈꾼 자유로운 삶

팀 버튼 감독이 담은 소박한 진심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빅 아이즈

한때 팀 버튼 감독의 열렬한 팬이었던 한 사람으로 그의 최근작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다크 섀도우'는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우울한 죽음을 꿈꾸던 굴 소년은 어느 새 사라지고 이제는 남들과 비슷한 모습이 된 어른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느낌이었다. 기괴함은 스타일로 남았으나 그 속에 깊이 밴 고독과 외로움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물론 우리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또한 언제까지 '비틀주스'나 '가위손'과 같은 위치에 머무를 수 없는 법이다. 애니메이션 '프랑켄위니'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되새긴 팀 버튼 감독은 다시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이 전작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빅 아이즈'라는 것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빅 아이즈'는 팀 버튼 감독이 '에드 우드'에 이어 두 번째로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면 팀 버튼 감독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 감독과 미술가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유의 기괴한 스타일을 버리고 드라마에 집중하는 진중함도 닮았다.

영화는 커다란 눈을 지닌 소녀를 표현한 '빅 아이즈' 그림을 둘러싸고 벌어진 희대의 스캔들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마가릿(에이미 아담스)과 그런 마가릿의 그림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챙긴 남편 월터(크리스토프 왈츠)의 이야기를 그린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 못하고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며 엄마로 살아야 했던 마가릿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맞서 싸운다. 그 고군분투는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팀 버튼 감독 특유의 분위기는 '빅 아이즈'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미술마저도 대량생산된 상품이 돼가는 산업화의 단면을 담은 마가릿의 꿈 장면에서 팀 버튼 감독 특유의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그 장면에는 미술과 예술에 대한 팀 버튼 감독의 변함없는 마음이 녹아 있기도 하다. '빅 아이즈'는 '에드 우드'와 함께 팀 버튼 감독의 가장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영화로 필모그래피에 남을 작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1월 28일 개봉.

온라인 핫 이슈

터보 김종국, 이번에는 마이키와 뭉쳐

90년대 인기 듀오 터보가 다시 뭉쳤다. 이번에는 김정남이 아닌 마이키와 함께 했다.

25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 800회 특집에서 터보(김종국·마이키·**사진**)는 '회상'과 '화이트 러브'로 무대에 올랐다.

터보는 '인기가요' 1회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특별무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송에서 터보는 겨울과 어울리는 스페셜 무대로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김종국과 마이키는 변함없는 무대매너와 가창력, 랩으로 90년대의 추억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특히 김종국은 최근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에서 보여준 김정남과의 무대와는 또 다른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에서는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신화의 특별무대도 함께 펼쳐졌다. /장병호기자

전현무, 배우 양정원과 열애설 부인

방송인 전현무(**사진**) 측이 배우 양정원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25일 "전현무가 방송을 통해 양정원을 알게 된 뒤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정원이 현재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이 걱정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현무와 양정원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스티커사진으로 열애설에 휘말렸다. 공개된 사진은 전현무와 양정원이 같이 찍은 것으로 보이며 '궁디팡팡' '70일' 등 연인 사이를 암시하는 글들이 남겨져 있었다.

전현무와 양정원은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다. 방송 당시 양정원은 이상형으로 전현무를 꼽기도 했다.

1989년생인 양정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다. 잡지사 기자, 국제 필라테스 교육원 교육 이사직을 역임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3'와 영화 '뽕똘' 등에 출연했다. /장병호기자

윤두준·권율·서현진 '식샤를 합시다!'

tvN 드라마 캐스팅… 4월 방송 예정

배우 윤두준, 권율, 서현진 등이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에 캐스팅됐다.

오는 4월 방송 예정인 '식샤를 합시다2'는 세종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남자 주인공 구대영(윤두준)이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며 겪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갈 예정이다.

'식샤를 합시다'는 1인 가구와 '먹방'이라는 트렌드에 스릴러·로맨스 등 극적인 재미를 조화시킨 드라마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시즌 주인공을 맡았던 윤두준은 극중 유명 맛 블로거이자 보험왕인 구대영 역으로 다시 출연한다. 서현진은 구대영 옆집에 사는 여자 백수지 역으로, 권율은 백수지가 동경하는 '엄친아' 공무원 이상우 역으로 함께 한다.

tvN '식샤를 합시다2'에 출연하는 권율, 윤두준, 서현진. (왼쪽부터)

이밖에도 김희원, 황석정, 조은지, 황승언 등 연기파 배우와 라이징 스타들도 함께 해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제작진은 "'식샤를 합시다2'는 각자의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이 하나되는 이야기로 우리 세대가 잊고 있었던 이웃의 따뜻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김수미 '전설의 마녀' 분위기 메이커

"높은 시청률 원동력"

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 김수미가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로 등극했다.

24일 '전설의 마녀'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수미는 장난기 넘치는 행동으로 배우진과 스태프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전설의 마녀' 측 관계자는 "촬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조금씩 지칠 법도 하다.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에 임한다"며 "이것이 높은 시청률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김수미는 '전설의 마녀'에서 고두심·한지혜·오현경·하연수 네 마녀들 못지 않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가 분한 김영옥은 교도소 복역 중 몰래 들여온 복권 1등에 당첨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다. 막무가내 행동과 언어 습관이 극의 재미를 더한다.

지난주 시청률 27.8%(닐슨 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선두를 기록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중동 킬러’ 이근호 해결사

오늘 오후 6시 아시안컵 이라크와 4강전… 한국 전력 한 수 위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목표 달성을 앞두고 또 하나의 고비에 도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대회 4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라크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이라크(114위)보다 45계단 높은 69위를 달리고 있다. 역대 전적에서도 최근 경기인 2007년 3월 친선경기 승리를 포함해 6승10무2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조별리그, 8강전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러 이라크의 전력누수가 심한 것도 한국에게는 긍정적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때 투입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동 킬러' 이근호의 활약이 기대된다. 센터포워드, 좌우 윙어, 처진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근호는 A매치 19골 가운데 11골을 중동 국가를 상대로 터뜨렸다.

이근호가 22일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와 역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2009년 3월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평가전에 선발로 출전해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해 2-1 승리를 도왔다.

앞서 2007년 6월 2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도 조커로 투입된 뒤 득점에 성공해 3-0 완승을 주도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현재 대표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골 맛을 본 선수는 이근호가 유일하다.

슈틸리케 감독은 "4강전도 총력전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 나서서 '즐거운 축구'를 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박주영 또 터키리그 이적설

현지 언론 "가지안텝스포르와 계약 임박" 보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알샤밥에서 뛰는 박주영(30·사진)의 터키리그 이적설이 또 제기됐다.

터키 일간지 가지안텝 엑스프레스는 24일(한국시간) 인터넷판(www.gazeteekspres.com)을 통해 "스트라이커를 찾는 가지안텝스포르가 한국인 공격수 박주영과 입단 합의에 도달했다"며 "애초 우구 알메이다(체세나)를 영입하려 했던 가지안텝스포르는 알메이다가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로 이적하기로 하면서 박주영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지안텝스포르는 터키 1부리그에 속한 팀으로 25일 현재 정규리그 7위에 올라 있다. 1969년 창단됐지만 정규리그 우승 경력은 없다. 지난 시즌에는 15위에 그쳤다.

박주영의 터키리그 이적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세뇰 귀네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부르사스포르 이적설이 있었다. 귀네스 감독은 한때 FC서울 사령탑을 맡은 '친한파'여서 이적설에 신빙성을 높였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박주영은 이후 알 샤밥과 올해 5월까지 뛰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올해 유럽의 여름 이적시장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됐다. /김민준기자 mjkim@

상대 수비수 가격 호날두 퇴장

R마드리드 2-1 진땀승… 메시 2골 폭발 30골 고지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중 퇴장 당했다.

호날두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코르도바의 에스타디오 누에보 아르캉헬에서 열린 2014-2015시즌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코르도바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38분께 코르도바의 수비수 에디마르 프라가와 몸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호날두는 상대방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밀쳐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주심은 곧바로 호날두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번 퇴장으로 호날두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경기 후 호날두는 자신의 트위터에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퇴장에도 코르도바를 2-1로 승리했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엘체와의 원정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넣어 팀의 6-0 완승을 이끌었다.

25일 열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코르도바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몸싸움을 벌인 코르도바 수비수가 입을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21골째를 터뜨린 메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골, 국왕컵 2골을 더해 시즌 31골을 넣어 7년 연속 30골 고지를 밟았다.

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메시는 28골을 기록해 이날 골을 못 넣은 호날두와의 격차를 7골로 좁혔다. /김민준기자

이라크전 느낌 좋은 '붉은 악마' 유니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4강전에서는 붉은 유니폼으로 출격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6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이라크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에 붉은 상의, 푸른 하의, 붉은 양말을 착용하라고 25일 통보했다. 이라크는 상의, 하의, 양말 모두 초록색이다.

한국은 홈 경기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는다. '붉은 악마'라는 애칭이 있듯이 선수들도 이 색깔을 좋아한다.

22일 호주 멜버른 렉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대표팀은 오만과의 A조 1차전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었지만 쿠웨이트와의 2차전, 호주와의 3차전에서는 흰색 원정 유니폼을 입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지난 22일 8강전에서도 한국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연장 혈투에도 끝까지 힘을 냈다. /장병호기자

PGA 휴매나챌린지 3R 박성준 선두권

박성준(29·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휴매나 챌린지(총상금 57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9위에 올랐다.

올해 PGA 투어에 데뷔한 박성준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라킨타 컨트리클럽(파72·7060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3라운드까지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박성준은 닉 와트니,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등과 함께 공동 9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전날 공동 22위에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며 공동 선두권을 3타 차로 추격해 최종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박성준은 2011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 진출해 2013년 바나H컵 KBC오거스타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 일본 정규시즌과 파이널스 합산 상금 랭킹에서 45위에 올라 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공동 선두는 지난해 심장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도 US오픈에서 2위에 오른 에릭 컴프턴(미국)과 컴프턴은 빌 하스, 저스틴 토머스, 마이클 퍼트넘(이상 미국) 등 4명으로 17언더파 199타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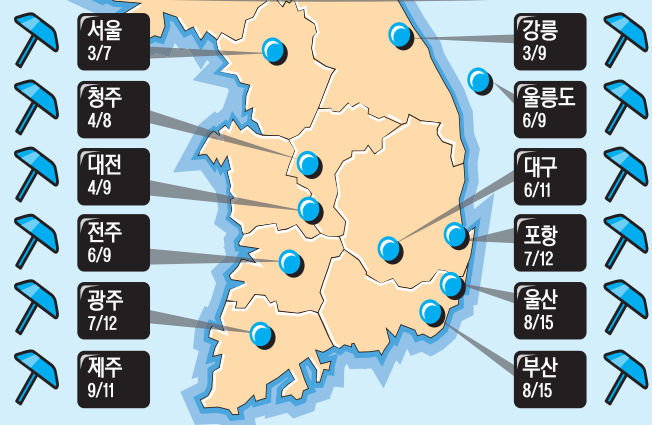
한편 재미교포 케빈 나(32)가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40위, 존 허(25)와 제임스 한(34),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는 나란히 9언더파 207타로 공동 49위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풍전등화 유로존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유럽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다시 한번 3억 유러피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2300여년 전에는 문명 창조자였지만 이번엔 공동체 파괴자 성격입니다.

25일 치러지는 그리스 유권자 980만명의 총선 투표 결과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운명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그렉시트(Greece+ 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쟁점은 구제금융과 이에 따른 긴축정책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급진좌파정당 시리자는 구제금융 채권자인 트로이카 즉,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을 통한 부채탕감과 긴축철회를 당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3일 기준 시리자의 지지율은 33% 안팎입니다. 기존 여당인 신민당(26%)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자리를 굳힌 양상입니다. 그리스는 총선에서 1등을 한 정당에 전체 300석 중 50석을 일단 떼주고 나머지 250석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 갖습니다. 시리자가 250석 가운데 100석만 지역구에서 확보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되는 셈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면 시리자는 단독 또는 군소정당 등 나머지 1~2개 정당과의 연합으로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리자는 그렉시트를 무기로 43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부채를 탕감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여타 채무국인 이탈리아·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로존 맹주 독일은 ECB가 지난 22일 발표한 양적완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국채매입 등이 그리스를 비롯한 문제국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물주인 독일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 후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한 뒤 부채탕감을 주장하고 나서면 독일도 '그것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고 맞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유로존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집국장

겨울에는 뇌졸중이 발생했다 일정 시간 후 저절로 호전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감각 이상, 마비 등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4		9		
9			6					
							3	1
8			7					4
		7	1		8	5		
2					9			8
5	8							
					6			2
		6		5		1	7	

9				4	6			7
6	8		2				3	
			8					9
	7		6					
			7	3	1			
					4		8	
3					5			
	5				9		4	2
7			3	6				1

스도쿠 정답

1	6	3	5	4	2	9	8	7
9	7	8	6	1	3	4	2	5
4	5	2	9	8	7	6	3	1
8	9	1	7	3	5	2	6	4
6	4	7	1	2	8	5	9	3
2	3	5	4	6	9	7	1	8
5	8	9	2	7	1	3	4	6
7	1	4	3	9	6	8	5	2
3	2	6	8	5	4	1	7	9

9	1	3	5	4	6	8	2	7
6	8	5	2	9	7	1	3	4
2	4	7	8	1	3	5	6	9
5	7	9	6	8	2	4	1	3
4	6	8	7	3	1	2	9	5
1	3	2	9	5	4	7	8	6
3	9	1	4	2	5	6	7	8
8	5	6	1	7	9	3	4	2
7	2	4	3	6	8	9	5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이 진 빚 때문에 고민이에요
불평 말고 자기 영역 다시 찾아라

Q 67년생 7월10일 음력 사시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2년째 풍경소리 구독하고 있습니다. 67년생 음력 7월 10일 사시 생 여자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진 빚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2년 전 오픈한 미용실도 매출이 형편없고 3년 동안 수많은 일도 많았는데 이제 힘 빠집니다. 당사자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저한테 도움되는 사람 없고 이날 이때까지 남 치다꺼리만 하다가 갈 인생인가도 싶고 조언 요청합니다.

A 민간에 삼살(三煞)을 흉하게 여기는데 겁살, 재살, 세살(歲煞)을 삼살이라고 하며 세 살은 천살을 말합니다. 살들의 영향은 운기를 자극하므로 크게 꺼리는 살(煞)이 기도하며 크게 발복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더러는 맞고 또 종종 빗나가므로 학자연하는 사람들이나 특정 단체에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주에 적용하는 법을 모르고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곳에 궁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운이나 행운으로 설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운세에서 삼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살의 운에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인사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사회적 활동력이 위축이 되고 사업, 자영업 등 일을 벌이면 손해가 십상이지요. 주변 상황이 엉클어져 복잡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과 피해에만 집착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대로 현실을 자책만 하다 말 것인가. 어느 행위 또는 삶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둘이 의지할 수 있으나 둘을 잃으면 알 수 없는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명적으로 예정된 흉화를 사람들이 피해갈 방도는 없겠으나 피해갈수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어떤 형태의 대체 물상으로든 대신 겪게 될 수도 있음이니 근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역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인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니 이를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였는데 무서운 삼살이 아닌 대박 나는 삼살을 만드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출중한 실력자 대열에 오르면 역경을 타고 넘을 수 있으니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주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일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사무처 김준규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김충섭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종우 ▲법제실 법제연구과장 상지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종수 ▲국회사무처 심정희 ▲국회사무처 연광석 ▲국회사무처 이강근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임명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양성 ▲국회사무처 임석기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춘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 ▲국회사무처 정승환 ▲국회사무처 조대현 ▲국회사무처 조영기 ▲국회사무처 박창희 ▲관리국 설비과장 송기형
◇서기관 승진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려진 ▲국회사무처 김용성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박기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박민호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손명동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보람 ▲인사과 이상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의사국 의정기록1과 한순덕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이건국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준형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 박동찬
◇서기관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오동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한노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월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강세욱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김안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모주영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김대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김건식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영찬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박지영
■ 국무조정실
◇ 과장급 전입 및 전보 ▲ 행정정책과장 김기영 ▲ 법무행정과장 전창현 ▲ 해양교통정책팀장 송기진 ▲ 저출산고령사회팀장 방진아
■ 병무청
▲ 중앙신체검사소장 곽유석
■ 한양대학교
◇ 서울캠퍼스 ▲ 비서팀장 김승 ▲ 경영감사팀장 송창근 ▲ 학사팀장 이근희 ▲ 입학운영지원팀장 문형구 ▲ 장학복지팀장 최경선 ▲ 구매팀장 이인균 ▲ 검수관리팀장 김남훈 ▲ 대외협력팀장 안종길 ▲ 대학원 경영지원팀장 김은미 ▲ 의과대학 행정팀장 명인식 ▲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장 이수옥 ▲ 경영대학 행정팀장 박경란 ▲ 음악대학 행정팀장 신순수 ▲ 예술·체육대학 행정팀장 최득엽 ▲ 학생생활관 행정팀장 김장곤 ◇ 에리카캠퍼스 ▲ 기초융합교육원 행정팀장 서동호 ▲ 검수관리팀장 김엽 ▲ 대외협력팀장 신승국 ▲ 학연산클러스터팀장 신영준 ▲ 학술정보운영팀장 양경은

부고

▲ 구자영씨 별세, 정재준(KBS창원총국 편집제작부장)·정영한(정영한 치과원장)·최정현(㈜범한엔지니어링 부장)·이정주(부산 화이트e치과원장)씨 장인상 = 24일 오후 2시, 창원 삼성병원 장례식장 VIP 1호, 발인 27일 오전. (055)290-5641~2
▲ 이진찬 씨 별세, 손석형(전 경남도의원)씨 모친상 = 24일 오후 4시 30분, 창원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55)280-0444
▲ 조명금 씨 별세, 김기복(한국실업축구연맹 부회장)씨 모친상 = 24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860-3500

옛 통진당 "정당해산 부당"

헌재에 재심 청구키로… "헌재 판단 대법 판결과 달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결정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이어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도 다수 관여했다. 보고서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심의 허용"이라며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상호 비교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유선준기자 rsun1952@metroseoul.co.kr

세월호 선체 탐사 개시 25일 오전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탐사대원들이 세월호 탐사를 위한 장비운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근절방안 마련 '온힘'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고 종합대책 논의

정부가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보육교사의 양성과정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게다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1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행정구역에 맞춰 16개로 나뉘어 있던 권역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되고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도 확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 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꺼려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기존에 소아전용 응급실로 운영되던 곳의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306보충대에 임시 거처 마련한 이재민들 의정부 화재 사고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306보충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칠곡서 가장 오래된 공룡화석 발견

지질유산연구소, 1억3000만년 전 지층서 용각류 확인

경북 칠곡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칠곡군과 진주교대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최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금무봉에서 1억3000만년 전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질유산연구소에 따르면 이 화석은 갈비뼈의 크기와 형태로 볼 때 네 발로 걷는 목이 긴 초식공룡인 용각류로 추정된다. 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에 속하는 낙동층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은 1억2000만년 전 형성된 지층인 하산동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이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경북 칠곡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가 나무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아울러 공룡 화석이 발견된 낙동층에서는 나무고사리 화석도 함께 발견됐다. 나무고사리 화석이 암반에서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나무고사리 숲이 있어 이를 먹이로 삼은 용각류 공룡이 이 일대에서 서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무봉 일대는 1925년 일본인 학자인 다테이와가 최초로 화석을 발견했고 1962년 화석산지로는 국내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칠곡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에 대한 중장기적 보존 조치와 종합 정비계획을 세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청와대 폭파" 심야 전화

군경 경계 강화… 프랑스서 온 국제전화 추정

심야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비상 출동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박범이 며칠 전 트위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저 폭파 협박을 한 사람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9분부터 5차례에 걸쳐 한 남성이 국제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남성은 전화로 수차례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련한 불만 때문인지는 말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남성의 번호 상 전화를 건 지역은 프랑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발신번호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계속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협박 전화에 청와대 주변에 군경을 추가 배치해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군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이 공조해 1차 수색을 한 결과 아직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합동대테러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전화를 건 발신인은 지난 17일 SNS 트위터로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사람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오후 4시 20분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 폭파 예정'의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트위터 협박범의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재 프랑스에 머무는 20대 한국인 남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민원실로 전화를 건 협박범의 발신번호가 프랑스인 점 등 연관성이 깊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만큼 프랑스 사법당국에 국제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국내로 그의 신병을 송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로 송환되면 해당 남성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선준기자 rsun1952@metroseoul.co.kr

종각역 대합실 공사장서 불 25일 낮 서울 종로구 종각역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GS건설이 종각역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대합실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곳에서 시작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변희재, 문성근에 300만원 지급하라"

비방 SNS 명예훼손 소송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박근혜 퇴진, 특검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사건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변씨는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같은 글을 올렸다"며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 선동하고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문씨가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했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해당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한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문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경기도 포천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포천 닭농장도 AI 확진

경기도 내 5번째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포천시 영중면의 한 양계장에서 채취한 닭 시료가 'H5N8'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의 AI 발생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확인된 AI로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산란용 닭 13만4000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발생지역 반경 3㎞ 내에 이동통제초소 3곳을 마련해 가금류 등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포천시 농가 120곳에서 700만 마리 이상의 산란용 닭을 기르는 것을 확인해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 거점소독초소 3곳을 설치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와 안성, 이천 등 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닭 60만500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황재용기자 hsoul38@

검찰, 직접 범죄 피해자 지원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직접 하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최근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 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 등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에 총력

의협,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국민건강·안전 외면 정책) 저지를 위해 뭉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기요틴 저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기요틴 철회를 위한 의료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영리화 정책과 국민건강·안전 외면 정책의 현황과 경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으며 기요틴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울러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은 정부가 사법부의 판례에 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영리화만을 가속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전국 의사 궐기대회' 등을 추진해 보건의료 기요틴 철회를 향한 의사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